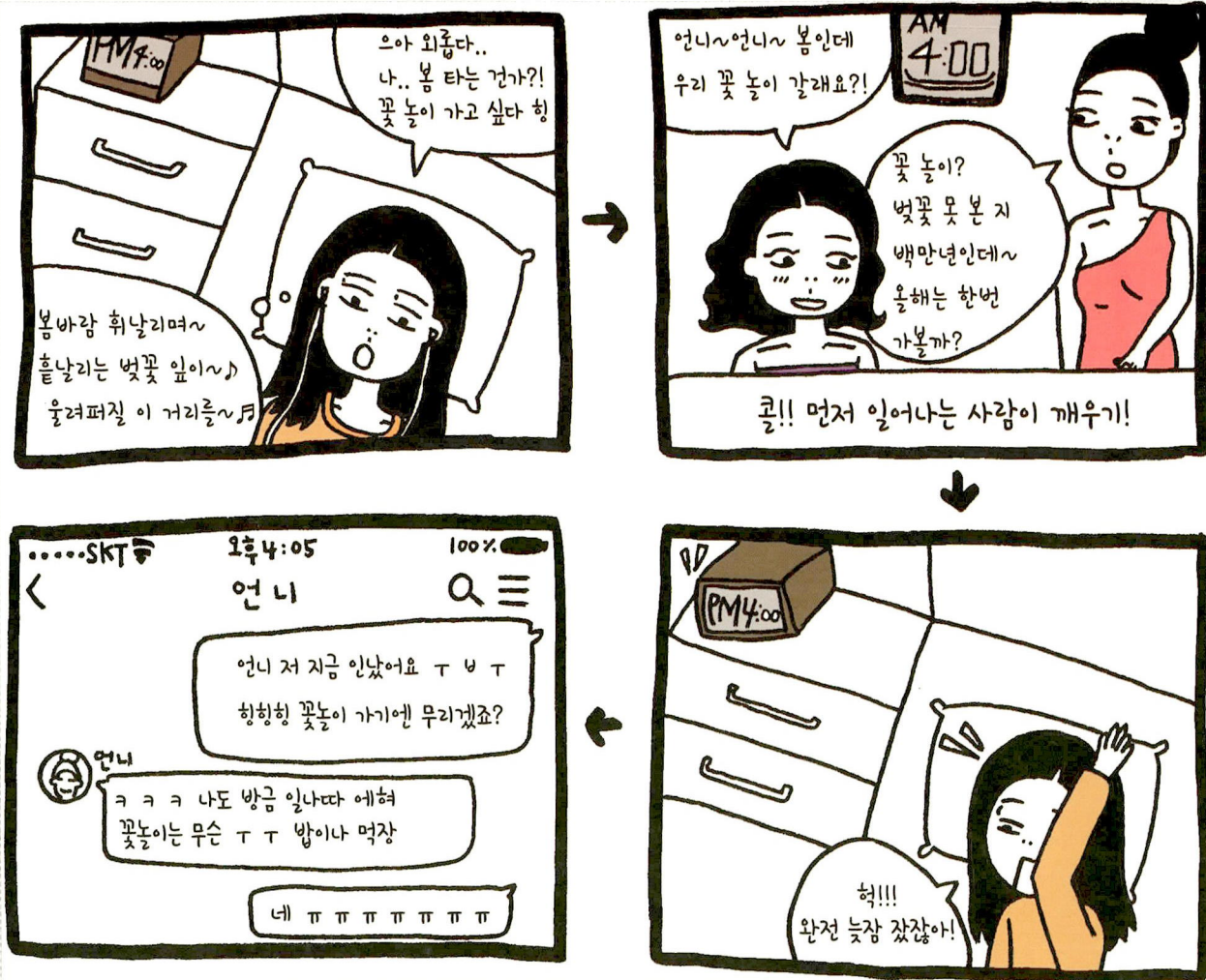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

벼레별툰
그림.공기
기획.송송



알 짜 배 기 건 강 상 식 O, X 퀴즈



두통에는 머리띠를 매는 것이 도움된다? (○)

머리가 아프면 끈으로 머리를 매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완전한 치료가 되진 않지만 일시적인 효과는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 주위의 근육이 수축을 하고 통증을 동반한다. 이때 우리가 머리띠를 두르는 부위가 이 긴장성 두통이 발생하는 부위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위를 지압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생리중에도 임신이 된다? (○)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100%는 아니다. 배란기간이 짧고 생리기간이 긴 사람이 생리가 끝날 무렵 성관계를 가지면 3일 이상 살아있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임신이 될 수 있다. 생리주기가 불규칙 하다면 더욱 위험하다.



근육질 남자는 정력이 세다? (x)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남자는 강한 남성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근육이 크다고 힘이 센 것은 아니다. 운동을 과다하게 하게 되면 성호르몬 분비가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리기 쉽다? (○)

우울증 환자는 치매 역시 조심해야 한다. 노인성 우울증 환자의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4배 이상 높다고 한다.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은 알츠하이머 등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스웨덴의 팔머 박사는 우울증세와 불안장애가 치매로의 이행과 연관이 있는지를 관찰한 결과 가벼운 인지기능 장애가 불안장애와 겹치면 이행될 위험이 2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알렉스]



별별신문 15호

| 발 행 일 자 |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 발 행 인 | 별별신문_송송,용,유나,볼,알렉스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도우미,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화류계 이야기
유흥업소 서바이벌 가이드 **화톡**

Q.업주/일수쟁이들이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A 일단 찾아 온 뒤에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에 맞는 대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1) 가족들에게 이상한 전화가 오거나 사람이 오면 그냥 상대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명의를 도용된 것 같다', '예전에 보증 선 문제로 친구가 해결중이다.' 등 연막을 쳐 놓고,

2) 믿을 만한 사람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3) 가족에게 연락하기 전에 본인에게 오는 전화 연락을 피하지 말고 받아서 녹음하세요. 통화하다가 "지금 이 통화 다 녹음 중 이다. 가족들에게 알리면 나도 가만있지 않겠다. 여성부에 신고하고 같이 경찰조사 받자. 나도 이렇게는 못산다. 나한테 할 말 있으면 법대로 해라." 얘기를 해보세요. 반응은 천차만별이지만, 쫓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녹음한 내용은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증거가 됩니다.

가족한테 연락하는 걸 무서워하는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난리를 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렵지만.... 그 앞에서라도 마음 독하게 먹고 대응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런 게 무서우면 일을 못하는거죠...

꼭 필요한 화류계 정보들이 가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화톡'을 찾아주세요!

화 톡



용 기자의 현장출동!

기 증

성매매특별법 위헌소송 공개변론, 그 현장에 가다!

지난 4월 9일, 성매매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2월 29일에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덩달아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헌소송의 쟁점은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2013년 1월 9일 위헌심판이 제청된 이후로 이에 대한 첫 공개변론까지 2년이 걸린 셈이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별별신문이 빠질 수가 있는가! 별별신문이 바라본 재판소 풍경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았다.



[11시] 1시부터 배부될 공개변론 방청권을 얻기 위해 이미 웅성웅성 사람들이 몰려있었다. 대부분 여성단체 사람들로 짐작됐다. 대충 분위기 보고 밥 먹으러 가야지 했던 마음을 다잡고 기자도 대열의 꿈무늬에 끼고 앉았다.

[12시] 방청권을 얻으려는 줄이 재판소 담벼락까지 길게 늘어섰다.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온 듯 했다. 물려든 인파를 확인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1시] 늘어선 줄의 반절 정도에서 방청권이 동이 났다. 애초에 100석이 준비되었다고 들었는데 왜 벌써 자리가 없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도 있었다. 같은 시각, 한터전국연합에서는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살고싶다’ ‘성매매특별법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피켓팅을 한 뒤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기원하는 성노동자 대표 외 882명의 탄원서’를 읽어내려갔다.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었고 인터뷰 열기 또한 뜨거웠다.

[2시] 공개변론이 시작되었다. 합헌, 위헌 측의 법률대리인 2인과 참고인 4인이 각 10분씩 변론을 한 뒤 재판관들이 질문을 했다. 위헌 측은 ‘현재의 성매매특별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성매매를 합법화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구역에서의 성매매를 국가가 규제·관리해달라는 요청임을 분명히 했다. 합헌 측은 선량한 성풍속을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성



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특별법이 필요하며, 성매매는 애정에 기초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통죄와 달리 성적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헌과 합헌 측 변호인 모두 그리 날카롭거나 똑똑하지는 않은 듯 했다. 준비해온 변론문을 읽어 내려간 뒤 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진땀을 뺐다.

참고인들의 변론과 재판관들의 질문과 최후변론이 쉬는 시간도 없이 이어졌고 그 열기 또한 뜨거웠다. 한편 가끔은 버벅대는 참고인들의 발언에 방청석이 웅성거리기도 했다. 장장 세시간 반에 걸친 공개변론은 이렇게 끝이 났고 남은 것은 재판관들의 판결이다.

지켜보는 언니들은 어떤 마음이셨을지?!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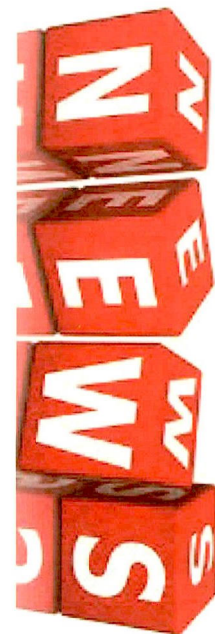
언니들 얘기를 듣고 싶어요~

유형업소 관련 소식, 직접 겪은 사연 등 어떤 얘기도 보내주세요~ 원고료를 드립니다!
eloom2003@naver.com
/ 010-8230-6279

심리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010-8230-6279

마음이 힘들어서 끔찍 앓고 있는 언니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잠을 잘 수 없어 괴로워 하는 언니들, 답답함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해소할 데 없어서 속앓이 하고 있는 언니들, 무기력하고 자꾸 눈물만 나오는 언니들 모두모두 언제든 연락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 물론! 전문가와 연결해드립니다.

이 바 닥 뉴 스 NEWS



▶작년 12월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단속강화, 전국 25개 집결지 폐쇄, 탈성매매 중심의 성매매 정책을 발표 후, 집행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작년 11월 25일 통영에서 티켓다방 함정수사 중 한 여성이 고층건물에서 낙하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함정수사는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2차 장소까지 간 다음, 문을 잠그고 단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별신문 독자 여러분 중에도 함정수사에 걸려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처한 그 분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구매자와 업주들부터 단속하지는 못할망정 **성판매 여성들만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이놈의 함정수사가 계속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월 13일에는 미아리 집결지에서 언니들 200여명이 함께 중앙경찰서에 항의방문을 하는 사건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1월 12일 서울 강남구에서는 무작정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고 하니 참 우려스럽습니다. 충북 세무서 공무원이 2012년 겨울부터 수년간 한 언니를 협박 및 갈취하고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뉴스도 있는데요. **권력을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부터 먼저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량리, 대구 자갈마당, 아산 장미마을을 비롯 집결지 폐쇄 소식도 속속 들려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언니들이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걱정이 앞서네요. 정말 단속하고 철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 공간에 살아온 언니들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탈성매매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언니들 위한다면서 집결지 합법화를 주장하는 업주들도 본심은 자기들 잇속 챙기려 하는 거고. **정작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답답한 심정입니다!** [볼]